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6월 7일(수)~9일(금) 초청전도집회 / 6월 11일(예수사랑 큰잔치)

'95 예수사랑 큰잔치 막 올라

오늘은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수사랑 큰잔치로
교구별 세부계획 작성, 전 교구원 긴밀히 접촉하며 초청전도집회에 참석토록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 I부 교회학교는 예배만
당일은 오전 7시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예배, 저녁 찬양예배시는 총동원 잔치로

그동안 준비해온 예수사랑 큰잔치가 금주 수요일(7일) 오후 8시 초청전도집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6월에 예수사랑 큰잔치를 치르게 되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교구, 각 전도회가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왔다. 또한 온 교회가 합심하여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었다. 지난 5월 22일 ~ 26일까지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로 일평균 2,500여명이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었다.

이제 마무리를 위해 각 교구에서는 교구별 모임을 통해 각 교구에서 협력할 사항과 각 교구 일꾼들이 감당할 일들을 분담하며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주간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기도하며, 대신자에게 전화하고, 교회에서 만날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한편 전도대상자와 대신자에게 보내는 초청장도 지난주부터 발송하고 있다. 아직 보내지 않은 사람은 금주 수요일 전에 방문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학교는 오늘(6월 4일) 각 부서별로 예수사랑 큰잔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회학교가 배가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교사와 학생들이 일치하여 계획하고 진행하여 왔다.

6월 7(수)~9일(금), 오후8시 초청전도집회, 전교인, 대신자 함께 참석

금주 수요일(6월 7일)부터 금요일(6월 9일)까지 모이는 초청전도집회에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결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초청전도집회에서 교회에 처음 나온 대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초청전도집회에서 6월 7일(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3:16), 6월 8일(목)은 '주 예수님을 믿으면' (행 16:27-32), 6월 9일(금)은 '성공하려면' (잠 3:7-10)의 제목과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

6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열리는 초청전도집회에 참석하는 대신자는 각 교구 텐트에 들어서 등록카드(환영합니다, 결신자카드 ①, 결신자카드 ②의 3장)에 기록하고 입장해야 한다.

집회시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결신초청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정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봉사가자가 도와서 결신자카드를 작성케 할 계획이다. 이날 결신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증정하게 된다. 또한 이에 교회에 나오면서 등록하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은 교구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아 새가족등록실에서 등록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초청전도집회에 참석은 각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모여서 함께 온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주차요령 숙지하고 주차 유도에 잘 따르기를

또한 당일에는 예년과 같이 본당 앞뜰에 각 교구별 천막을 설치하여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 당일에는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저녁 찬양예배) 등 2시간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5시 저녁 찬양예배시는 모든 사람이 모여 잔치를 하게 된다.

이날 I부 교회학교는 예배만 드리게 된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부처장단만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각자 전도대상자에게 집중하게 된다. II부 교회학교는 집회로 모이지 않고 전원 전도에

힘쓴다. 예년에는 봉사, 안내를 위해 전도회 임원들이 담당했으나 이번에는 봉사와 안내를 대학·청년들이 담당하도록 해서 온 교회 교우들이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일에는 제일 큰 문제는 차량관리 문제이다. 차량관리요원이 전원 동원되며 조직적으로 하겠지만 교회 사방에서 밀어닥치는 차량을 요령껏 주차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대로 해결하자면 우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실 분들은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일이고, 또한 차량운전자는 차량관리요원의 인도에 철저히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 정한 교회 진입로의 일방통행 원칙을 지켜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관리를 돕기 위해 대학부 회원이 전원 동원되어 도울 것이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마지막 그물을 당기기 위해 마지막 노력과 정리가 남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실제로 행한 사람의 몫이다.

전하자 예수사랑 모이자 충현교회
찾아오자 잃은양떼 보살피자 찾은양떼

제4회 예수사랑 큰잔치 주요 일정

· 초청전도집회

6월 7일(수) ~ 6월 9일(금) 오후 8시부터

· 예수사랑 큰잔치(6월 11일, 주일)

I부 예배 / 오전 7시

II부 예배 / 오전 9시

III부 예배 / 오전 11시

IV부 예배 / 오후 1시

V부 예배 / 오후 3시

저녁찬양예배 / 오후 5시



충현기도원 설립 17주년 기념부흥회가 지난 5월 29일(월) 저녁부터 6월 1일(목) 새벽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열렸다. 매년 기도원 설립 기념일을 기하여 열리는 부흥회는 금년에는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열리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부흥회가 되었다. 김장인 원로목사와 우희영 목사(성실교회 담임목사)와 기도원 지도 장경철 목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9595

95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매일 오후 9시부터 5분간 기도합니다.

9595

◀ '95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만난 당회장 신성종 목사 ▶



예수사랑 큰잔치, 자발적인 참여로 온 교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성도들을 보며 늘 감사와 자부심을 가져

예수사랑 큰잔치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예년에 비하여 조용한 가운데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아하고 걱정되는 바가 없지도 않아 일주간의 새벽기도회가 끝난 5월 26일(금) 오전, 주일 준비와 다음 주 출국 준비로 바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을 만나 예수사랑 큰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 지난 주간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경험을 했고, 결과를 좋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새벽기도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 새벽기도회에 교역자들은 3,000명 정도가 참석하리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너무 지나치게 강제성을 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라기보다는 강력한 권면을 해서 오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주일 저녁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석인원수는 첫날이 2,400명으로 제일 적었고 마지막 날이 2,650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인위적인 부흥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위적인 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열심을 내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회라든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는 일들을 할 뿐입니다. 금년 예수사랑 큰잔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금년으로 예수사랑 큰잔치가 4년째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로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운동본부에서 많은 지시나 지침이 없었는데도 각 교구나 전도회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금년에 처음이라 그 결과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금년의 예수사랑 큰잔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모습이 제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전도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벤트화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회장으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비전을 제

시하고, 예수사랑 큰잔치의 날짜를 정해 주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벤트화해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해주실 것이고 그러는 중에 우리 교인들도 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를 깨달아 가게 되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를 얻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깨달아 나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는 또 한걸음 전진이 있다고 봅니다.

결과라는 것도 그렇지요. 몇명이 모였고 몇명이 새로 왔다가 해서 그런 수치만

수사랑 큰잔치에 대한 오해도 있었겠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목사님께서 자세한 얘기는 안하시고 큰 방향만 제시하시다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그저 많이 끌어 오라' 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터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사랑 큰잔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는 자리매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사랑 큰잔치에 대한 보다 깊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 그렇습니다. 본래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게 된 근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총동원 주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실 물량주의적 전도방식이거든요. 일정 기간동안 엄청난 예산을

에도 거기에 기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하,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밟고가는 것이 좋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주일 설교 때는 의례이 들었으려니 생각하고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잘 안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오래 믿은 사람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아주 큰 부산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면에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기독교계 주간 신문의 편집국장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모델을 발견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보급할 마음은 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예수사랑 큰잔치이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총현교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큰 윤곽은 잡혔지만 어떤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에 가장 잘 맞는가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맞으면 다른 교회에도 맞습니다. 그러기에 좀더 다듬어서 구체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불링애기를 많이 합니다. 불링을 칠 때 어떤 사람은 점수만 생각하고 구질이나, 폼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폼이 좋고 위킹을 잘하고 구질이 좋아지면 점수는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교회의 성장, 그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며 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신앙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정말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살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리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회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교인들을 하나로 묶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하는 가운데 각자의 신앙이 활성화되고 신앙적 제철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 오늘 목사님 말씀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모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는데 교인들에게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잘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늘 감사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각자의 신앙이 얼마나 깨어있게 되었고, 새로운 힘을 얻어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단마음으로 협력해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결과란 한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활성화 시키자,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일으키면 전도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나 모든 면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숫자가 늘는 것은 부수적인 열매이고 더 큰 열매는 교인들의 신앙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 그런면에서 이번 새벽기도회는 참 바람직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도 그만한 유익이 있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다함께 모일 때는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깨닫고 배우고 익히는 좋은 기회였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사랑 큰잔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동안에 예

투입하여 온 교회가 동원되어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만명, 몇 십만명을 동원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전하는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돈없는 교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총동원 주일식의 물량 위주가 아닌 다른 대안이 없었느냐해서 생각한 것이 예수사랑 큰잔치입니다. 또 예수사랑 큰잔치의 내용은 저 혼자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모든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특허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작년부터 달라진 것이 초청전도 집회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의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이죠. 초청전도 집회를 하니 전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교회가 그렇게 번잡하지 않아서 좋았고, 또한 이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인데 우리 교인들이 더 은혜를 받더라구요. 내용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초신자용이었는데 천만 뜻밖

'95 예수사랑 큰잔치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남은 3~6일이 더 중요합니다 초청장과 홍보신문을 보냅시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한다고 해왔지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실망하다가도 마지막이 잘되면 그 만큼 기쁨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사랑 큰잔치를 열심을 다해 준비해 왔다. 태신자를 정하고 위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전도지를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오후 5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일했던 품꾼의 심정으로 이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무슨 일이든 마무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열매는 맨 나중에 열리기 때문이다.

◆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한 주간 작전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금주 일주일에 할 일을 정리하여 보았다.

초청장

1995. 6. 11

"번민시간에 오십시오"

1부: 오전7시 1부: 오전9시 1부: 오전11시
2부: 오후1시 2부: 오후3시 2부: 오후5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예수사랑 큰잔치

· 주일(6월 4일)
태신자(초청대상자)의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 월(6월 5일)
태신자에게 초청장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초청장과 홍보신문을 보내십시오.

· 화(6월 6일)
태신자가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 수(6월 7일)
초청전도집회 첫날입니다. 전화를 하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장소를 약속하십시오.

· 목(6월 8일)
구역식구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 금(6월 9일)
집회 마지막날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총력진군하십시오.

· 토(6월 10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꼭 나오시라고 전화하십시오.

· 주일(6월 11일)
가능한대로 찾아가서 태신자를 모셔 오십시오.

◆ 당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초청전도집회 및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에는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① 각 교구 텐트(표 1)에 '환영 및 결신카드'를 작성한 후에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② 태신자 중에 예배 참석 전에 등록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인도자 및 교구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아 새가족 등록실에서 등록절차를 받는다.

③ 집회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결신초청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안내위원이 환영스티커를 붙여 주며, 결신자는 안내위원에게 결신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이 날 결신한 등록자들에게는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을 증정한다.

⑤ 예수사랑 큰잔치의 결신자 및 등록자는 대 교구별로 제1차 결신자 뿌리 내리기 일제심방(6월 12일(월)~ 6월 16일(금)), 제2차 결신자 뿌리 내리기 일제심방(6월 19일(월)~ 6월 23일(금))에 걸쳐 결신자 심방을 실시한다.

★ 단 결신자 심방을 통한 등록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새가족 등록실에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등록심방을 받은 자는 새가족 양육위원들이 6개월 간에 양육 및 관리를 통하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영합니다"

초대방오시분		초대방신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결신자 카드

초대방오시분		초대방신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결신자 카드

초대방오시분		초대방신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화

<등록카드>

⑦ 결신자 중에 심방을 거부하거나, 사정상 받지 못한 자는 선별하여 새가족 위원회에서 7주간 양육서신을 보내준 후에 교구 양육위원이 일대일로 만나서 구원초청을 한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한다.

◆ 주력교구 (전도집회와 당일)

초청전도 집회 및 행사 당일에 특정 시간에 집중하여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에 각 일자 및 시간별 주력교구를 선정하여 해당되는 교구원들은 가능하면 그날과 시간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초청전도집회는 주력교구가 아니라고 해도 적극참석을 바란다.

① 초청전도집회

6월 7일(수)~9일(금) : 4,000명 목표

· 6월 7일(수)

1, 2, 3, 4, 5, 8, 11, 12교구와 대학부

· 6월 8일(목)

1, 2, 3, 4, 6, 9, 11, 13교구와 청년1부

· 6월 9일(금)

1, 2, 3, 4, 7, 10, 11, 14교구

② 총동원 주일예배

6월 11일 - 20,000명 목표

<새가족 10,000명>

- 1부 예배 (07시) : 교회일꾼
- 2부 예배 (09시) : 1, 2, 5, 6교구
- 3부 예배 (11시) : 7, 12, 14교구
- 4부 예배 (01시) : 8, 9, 10, 13교구
- 5부 예배 (03시) : 3, 4, 11교구
- 찬양예배(05시) : 감사와 찬양의 시간

(2면에서 계속)

▶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인구가 여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안에 여성도가 더 많은 것은 남자들이 안 믿는 가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편, 큰 아들, 조카 그 사람들을 이 기회에 여기에 어떻게든 동참케해서 은혜받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새벽기도회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같이 왔습니다. 아마 여집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은 졸려서 어쩔줄을 몰라하는데 남편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남편을 못 졸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부인이 가자고 졸라서 할 수 없이 따라나온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감사

했습니다.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충현의 가족들은 식구들 가운데 안 나오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믿되 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한 교회에 온 가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이런 기회에 안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두번째로 부부생활을 오래 해도 아이들이 없으면 적막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나혼자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는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 가운데서 목사된 사람이 있네, 전도사 된 사람이 있네' 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은 일평생 가고 천국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 의도를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가족중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강조가 될 것 같고, 태신자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집에서 가까운데 있는 누구,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복음화된 가정은 집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집에만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라는 울타리가 자주 넓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잘 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늘 감사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각자의 신앙이 얼마나 깨어있게 되었고, 새로운 힘을 얻어 개인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단 마음으로 협력해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 · 정리 / 이 형 수

(집사, <주간충현> 편집장)

원활한 소통 및 주차를 위해 임시주차장과 대중교통 활용토록 주차관리 요원의 인도에 잘 따라야 일방통행로를 잘 지키도록

다음 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엔 제일 어려운 점은 교통 소통 및 주차문제이다. 준비위원회 봉사분과에서는 이 문제를 위하여 교회 주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은 교회 주차장보다 이용하기가 불편하겠기에 가능하다면 교회 직분자나 하루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할 방침이나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교회 진입로와 퇴로를 일방통행로로 정하고 운영하게 된다. 다소 돌아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따라준다면 교통 소통과 주차에 큰 도움이 되겠기에 모두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있다. 봉사분과에서 부탁하고 있는 주차요령은 다음과 같다.

◆ 임시주차장 이용에 적극 참여합시다

- 1) 이날은 약 2만명의 장년성도들이 예배에 초청, 참여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약 2배 가까운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므로 기존의 주차장으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 2) 1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장으로 진입이 금지됩니다.
 - 3)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여러 성도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① 언주로 노상주차(언주로 복단에서 전신전화국 앞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 다)
- ② 전신전화국(전신전화국 옥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청구주택주차장(장안주차장 밑에 있는 청구주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교육관(제2) 현장 아래쪽
 - ⑤ 예치과 앞(교회 앞 예치과 옥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역삼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합니다(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오후 4시~5시 30분)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삼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는 청년봉사요원(대학부)들이 안전을 위해 고정 배치됩니다.

◆ 대형버스는 임시 승하차장을 이용합니다

이 날은 특별행사의 날이므로 대형버스의 진입으로 인한 차량소통의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승하차장을 지정 운영합니다.(장소: 광혜의원 앞, 표지판 설치함)

◆ 그동안 실시해오고 있는 진입로 일방통행제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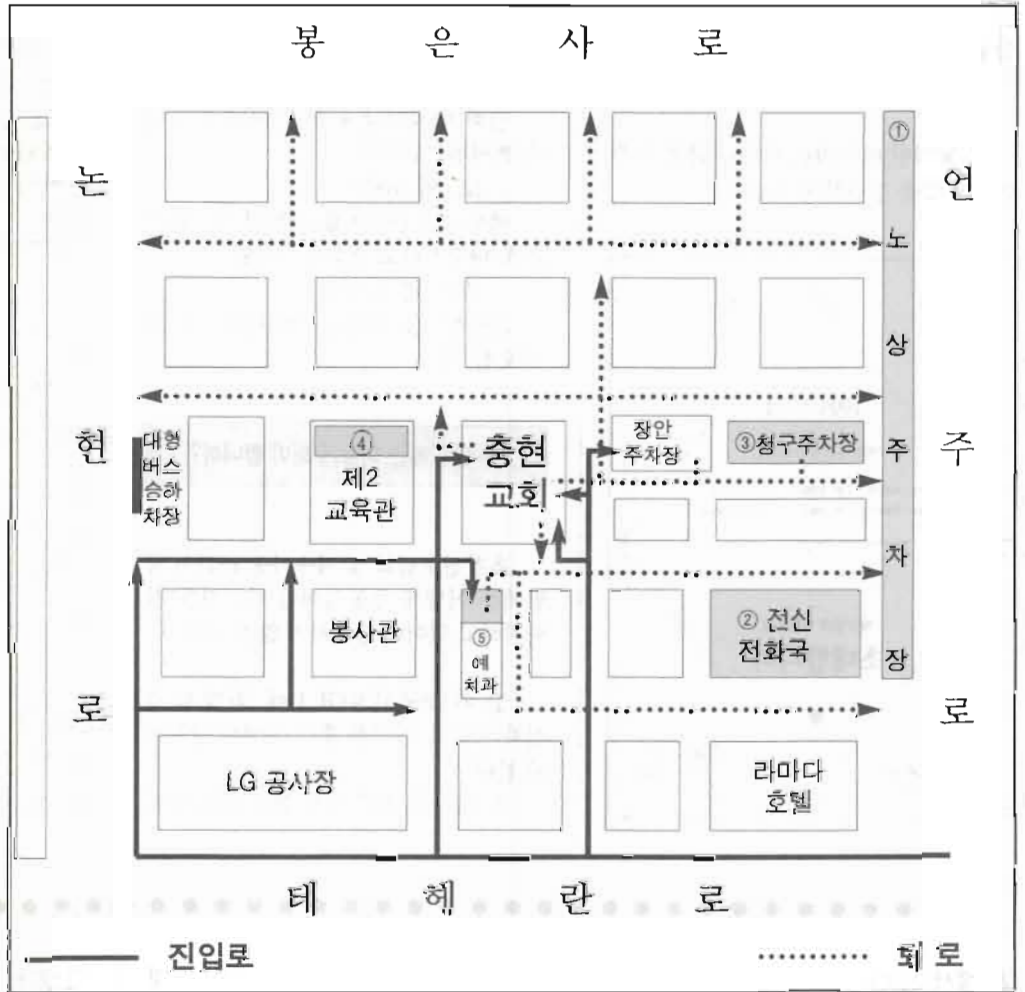
아래의 도면을 참조하여 일방통행로 이용을 잘 지켜주세요.

차량 일방통행로 및 임시 주차장 ▶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 신성종 목사: 6/6(화) 충현교회 김양훈 목사 위임예배 설교, 6/7(수)~6/9(금) 초청 전도집회 설교, 6/8(목) 충현복지관 개관예배 설교
2. 초청전도집회(6/7(수)~6/9(금)), 6/11(주일) 예수사랑 큰잔치 당일(1~5부, 찬양예배)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면서 대신자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도록 사랑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시며, 좋은 날씨를 주시고 모든 준비를 잘 하게 하소서.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선거가 공명하게 치뤄져 필요한 일꾼이 선택되게 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 만남의 장소

본당



할일을 앞에 둔 우리들이 생각하며 읽어 보면 좋은 글

오직 그 촛불이 타고 있을 동안에

옛날 쉼톤(Saxon) 왕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에 반역도들의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임금의 직접 반역도들을 평정하려고 나섰고, 위난을 겪은 임금이었기에 곧 난리를 진압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왕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전국에 벌레 알레세, 임금이 왕궁의 정문에 촛불을 켜놓는 동안에 반역음모에 개입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자수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촛불이 타고 있는 사이에 자수를 한 사람은 누구든 무조건 용서해주는 멋진 특혜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촛불이 타고 있을 동안에 한해에 기회를 준 것입니다.

초 한자루가 오래 타야 얼마나 길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바로 이 한자루의 초가 불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어떤 촛불은 일찍 바람에 꺼질 수도 있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직 촛불과 같이 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비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촛불이 꺼진 후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과 온 가정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